

치 사

문화재 보수의 전통 기법과 기량을 올곧게 전승하고, 나아가 현시대에 작품제작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온 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의 제13회 작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을 살며 자칫 잊혀지기 쉬운 전통 건축과 공예, 그리고 회화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멋과 감동을 선사해주신 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와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작품전은 목조와 석조의 문화재를 재현하여 전시하고, 그 과정을 공을 들여 시연한다고 하니, 한국 문화재기능의 우수성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화재를 수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일생의 삶으로 삼는 장인의 길은 고행을 자처한 수행의 길과 닮아 있고, 진흙 속에서 잎을 띄우고 꽃을 피워내는 연꽃의 향기로움처럼 많은 이들에게 청명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전통과 역사의 가치가 날로 중요시 되어 가는 현시대에 전통문화를 온전히 계승하고, 시대의 정신을 담아 발전시키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많은 문화재기능인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뜻 깊은 오늘을 위해 진력하신 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작품전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마음과 여유를 선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11월 0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